

도시와 어촌노인의 가족친밀도에 따라 노인들의 자살충동에 대한 분석

양미자^{1*}, 조성제¹
¹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An Analysis related with Suicide Impulse according to Family Intimacy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and a Fishing Village

Mi-Ja Yang^{1*} and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어촌노인의 가족친밀도에 따라 노인들의 자살충동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3년 3월10일 부터 7월 29일 까지 서울시 N구 거주하는 노인대상과 2013년 5월 17일부터 9월20일 까지 전남 완도군 S면 거주 노인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각각 100명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방법 등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노인의 가족친밀도가 낮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둘째, 도시노인의 자살충동은 가족친밀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자살충동은 도시노인이 어촌노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가족기능의 친화력향상에 대한 노인들의 자살 예방정책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related with suicide impulse according to family intimacy of the aged people in a metropolis and a fishing village. Subject of the research were 100 aged people residing at N Goo, Seoul from March 10 to July 29 in 2013 and 100 aged people residing at S-myon, Wando-gun, JeollaNam-do from May 17 to September 20 in 2013 respectively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data was executed for t-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method, etc. using SPSS/WIN 18.0 program. Empirical analysis was verified at 5% of significance level. From the result of the analysis, firstly,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was high when family adaptation capability of them was low. Secondly,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amily adaption capability. Thirdly,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was higher than that of aged people in a fishing village. It is thought that this thesis can suggest a good reference document in establishing a suicide prevention policy for enhancing intimacy of family function.

Key Words : Family function, Family intimacy, Metropolis and fishing village, Suicide impulse, Suicide prevention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로기술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노인 2명중 1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3.3%의 3.4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이러한 노인 빈곤이 자살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65-74세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높다 [1]. 그래서 노인들의 거주지역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가 진행되었다. 노인들의 거주 지역 연구에서

*Corresponding Author : Mi-Ja Yang(Dongbang Graduate Univ.)

Tel : +82-2-734-7300 email: skpq1@naver.com

Received December 3, 2013

Revised (1st January 9, 2014, 2nd January 14, 2014, 3rd January 16, 2014)

Accepted February 5, 2014

는 생활만족도와 남녀노인의 생활수준으로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오승환[2]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거주 지역을 구분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가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질환 질병 수에 있어서는 어촌노인이 가장 높았지만, ADL과 IADL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노인이 농촌과 어촌지역 노인보다 더 기능수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인의 생활수준의 연구에서는 임금선[3]은 노인자살예방을 목적으로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이 우울, 자살생각, 가족관계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효과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 군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노인생명존중프로그램이 노인우울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며 우울 노인의 자살예방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삼성[4]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의 연구결과는 노인인구 중 지난 1년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 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 최창식[5]은 기독교를 신앙으로 가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종교 정향성과 생활수준 및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에 대해 연구 결과는 노인들이 생활의 태도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자살생각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살의 가능성도 높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는 생활의 태도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자살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정서적 문제 연구에서는 김기태[6]는 노인의 부정적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분석 결과, 주관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이 많을수록, 고독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 자살예방에의 함의와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강현욱[7]은 우울이 노년기에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정신과적 문제 중의 하나이며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 정신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은 노인 인구의 수와 의료시설에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며, 이러한 차이들은 두 지역 노인 간의 우울정도 및 우울 관련 요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된다.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점은 노인들의 거주지역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가족친밀도에 따라 노인들의 자살충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어촌노인의 가족친밀도에 따라 노인들의 자살충동에 대하여 분석을 연구하고자 한다.

1.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어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은 어떠한가?

둘째, 도시와 어촌노인의 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도시와 어촌노인의 가족친밀도는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설계

연구대상자는 2013년 3월10일 부터 7월 29일 까지 서울시 N구에 소재하는 만남의 등산로와 도봉구 등산로 입구 전남 완도군 신지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7일부터 9월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설문조사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또한 조사자가 개인 면담을 병행한 결과 설문지 100부를 최종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와 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으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향후 표본을 높이고 다양한 변수를 선정하여 노인의 자살생각과 가족친화력과의 관계검증을 위한 계속적인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이용하였으며, 5%유의수준과 90% 검정력,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5로 지정하여 최소 표본 수는 70명으로 산출되었다.

2.2 연구 도구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8]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부양자, 가족 중 자신을 돌보는 사람 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성별은 도시와 어촌의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하였다.

2.2.2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요인

조사도구는 신민섭[9]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살생각척도는 “전혀 생각한 적 없다” 0점,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만, 지난달에는 한 적이 없다” 1점, “한 달에 한번” 2점, “한 달에 2-3번” 3점, “일주일에 1번” 4점, “일주일에 2-3번” 5점, “거의 매일” 6점으로 구분하였다.

2.2.3 가족의 친밀도 특성요인

조사도구는 김윤희[10]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의 친밀도 측정도구 이용자의 바람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비교적 그렇지 않다” 2점, “간혹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으로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2.3 신뢰도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Verification of Reliability in each Area

Description	Paragraph Count	Reliability
Suicide Impulse	28	.932
Family Function	Family Cohesion	.600
	Family Adaptation	.606
Family Function	20	.694
Family Intimacy	5	.604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료는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도시와 어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자살충동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스케어 검정(χ^2)을 실시하였다. 자살충동과 가족의 친밀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의 계수로 판단하였다. 도시와 어촌노인 가족의 친밀도와 자살충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도시와 어촌노인 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이 도시는 ‘남자’ 46.0%, ‘여자’ 54.0%이었고, 어촌은 ‘남자’ 56.0%, ‘여자’ 44.0%로 도시와 어촌 모두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가구의 월 소득이 도시는 ‘100-200만원’ 41.0%, ‘월 100만 원 이하’ 30.0%, ‘200-300만원’ 16.0% 순이었으며, 어촌은 ‘월 100만원 이하’ 가 63.0%로 대부분이었다. 자녀수는 도시와 어촌 모두 ‘2명’이 각각 45.0%, 36.0%로 가장 많았으나, 도시는 ‘1명’이 22.0%로 많았고, 어촌은 ‘4명 이상’이 30.0%로 많았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모두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도시와 어촌의 월소득과 자녀수는 상반되게 조사되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escription	Metropolis		Fishing Village		χ^2 (p)	
	N	%	N	%		
Sex	Male	46	46.0	56	56.0	2.001 (.157)
	Female	54	54.0	44	44.0	
Monthly Family Income	Basic Livelihood Receiving Family	4	4.0	8	8.0	31.026*** (.000)
	Monthly 1 Million Won or less	30	30.0	63	63.0	
	1-2 Million Won	41	41.0	21	21.0	
	2-3 Million Won	16	16.0	2	2.0	
	3-4 Million Won	5	5.0	3	3.0	
Religion	4 Million Won or more	4	4.0	3	3.0	27.752*** (.000)
	Roman Catholicism	23	23.0	0	.0	
	Buddhism	28	28.0	33	33.0	
	Christianity	25	25.0	32	32.0	
	Won Buddhism	1	1.0	0	.0	
Marriage	None	23	23.0	35	35.0	14.156* (.015)
	Married	75	75.0	71	71.0	
	Single	2	2.0	2	2.0	
	Divorced	12	12.0	2	2.0	
	Separated	1	1.0	1	1.0	
Age	Living Together	0	.0	3	3.0	4.081 (.253)
	Bereaved	10	10.0	21	21.0	
	below 65 years	15	15.0	7	7.0	
	65-74 years	49	49.0	53	53.0	
Academic Attainments	75-84 years	33	33.0	34	34.0	32.032*** (.000)
	above 85 years	3	3.0	6	6.0	
	Elementary School	18	18.0	35	35.0	
	Middle School	19	19.0	34	34.0	
No. of offsprings	High School	39	39.0	30	30.0	24.273*** (.000)
	University	24	24.0	1	1.0	
	1	22	22.0	9	9.0	
	2	45	45.0	36	36.0	
	3	23	23.0	24	24.0	
	4 or more	6	6.0	30	30.0	
	None	4	4.0	1	1.0	

Supporter	Husband	31	31.0	9	9.0	44.789*** (.000)
	Wife	14	14.0	2	2.0	
	offsprings	7	7.0	38	38.0	
	Kinsman	1	1.0	2	2.0	
	The Person Himself	47	47.0	47	47.0	
Helper	Others	0	.0	2	2.0	59.540*** (.000)
	Son	22	22.0	8	8.0	
	Daughter	28	28.0	1	1.0	
	Daughter in law	4	4.0	36	36.0	
	Son in law	1	1.0	3	3.0	
No. of Siblings	The Person Himself	44	44.0	49	49.0	9.539* (.049)
	Others	1	1.0	3	3.0	
	1	11	11.0	4	4.0	
	2	27	27.0	17	17.0	
	3	25	25.0	25	25.0	
Total	4 or more	33	33.0	51	51.0	
	None	4	4.0	3	3.0	

3.2 도시와 어촌노인의 가족의 친밀도와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

3.2.1 도시노인 가족의 친밀도와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

도시 노인가족의 친밀도와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도시노인의 자살충동은 가족친밀도($r=.290, p<.01$)과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이 있었다.

[Table 3] Correlations of Family Function, Family Intimacy and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Description	Family Function		F. Func.	F. Intim.	Suicide Impulse
	Family Coh.	Family Adapt.			
F. Cohesion	1				
Family Adaptation	.136	1			
Family Function	.737***	.770***	1		
Family Intimacy	.257*	.553***	.543***	1	
Suicide Impulse	-.088	.290**	.141	.137	1

*** $p<.001$

3.2.2 어촌 노인가족의 친밀도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

어촌 노인가족의 친밀도와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어촌노인의 자살충동은 가족응집력, 가족의 친밀도와와의 상관성이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s of Family Function, Family Intimacy and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in a Fishing Village

Description	Family Function		F. Func.	F. Intim.	Suicide Impulse
	Family Coh.	Family Adapt.			
Family Cohesion	1				
Family Adaptation	.547***	1			
Family Function	.881***	.877***	1		
Family Intimacy	.009	.081	.051	1	
Suicide Impulse	-.114	-.018	-.076	-.067	1

*** $p<.001$

3.3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요인

3.3.1 도시노인 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도시노인 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도시노인, 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101$ 로 전체 변동의 10.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 :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이상이거나 허용치가 0.1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본 분석에서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형은 유의한 것을 알 수 있으며($F=3.577, p<.05$), 가족친밀도($\beta=.307, p<.05$)만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시노인의 가족친밀도가 낮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Impact of Family Function and Family Intimacy on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Description	Dependent Variable : Suicide Impulse					
	B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1.181	.234		5.054***	.000	
Family F. Cohesion	-.089	.069	-.131	-1.303	.196	1.071
Family F. Adaptation	.198	.075	.307	2.639*	.010	1.440
Family Intimacy	.001	.048	.002	.013	.989	1.513

$$R^2 = .101, \text{ adj } R^2 = .072, F = 3.577^*$$

* $p<.05$, ** $p<.01$, *** $p<.001$

3.3.2 어촌 노인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어촌노인 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어촌노인 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R^2=0.021$ 로 전체 변동의 2.1%로 회귀모형을 설명하고 있으나, 추정된 회귀식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6] Impact of Family Function and Family Intimacy on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in a Fishing Village

Description	Dependent Variable : Suicide Impulse					
	B	Standard Error	β	t	p	VIF
(Constant)	.798	.220		3.632***	.000	
F. Family Cohesion	-.093	.074	-.153	-1.265	.209	1.429
F. Family Adaptation	.044	.075	.071	.589	.557	1.438
Family Intimacy	-.034	.049	-.071	-.702	.484	1.008
$R^2 = .021$, $adj R^2 = -.010$, $F = .685$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어촌노인의 가족친밀도에 따라 노인들의 자살충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어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도시와 어촌은 모두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녀수는 어촌이 도시보다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김은정[11]의 월평균 소득이 농촌노인보다 도시노인이 약 1.5배 높다는 결과와 같은 의미이다. 이 의미는 도시노인이 어촌 및 농촌 노인보다 월 소득이 높다는 결과와 같다.

둘째, 노인가족의 친밀도가 자살충동과의 상관관계에서 도시노인의 자살충동은 가족친밀도($r=.290$, $p<.01$)과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이 있었다. 그러나 어촌노인의 자살충동은 가족응집력, 가족의 친밀도와의 상관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도시노인이 어촌 및 농촌 노인보다 자살위험 군이 높다는 결과와 같다. 이 의미는 어촌 및 농촌 노인은 가족응집력, 가족의 친밀도에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농사와 어업을 함으로써 가족응집력, 가족의 친밀도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도시노인의 가족친밀도($\beta=.307$, $p<.05$)만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시노인의 가족친밀도가 낮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결과는 오승환[2]가 사회적 지지점수를 비교할 때 도시지역의 노인들이 농촌과 어촌지역의 노인에 비해 매우 낮은 정도의 지지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해정[12]은 노인의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자살 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와 같다. 이 의미는 도시노인이 어촌 및 농촌 노인보다 자살 위험군이 높다는 결과와 같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N구와 전남 Y군 100명 대상으로 가족친밀도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자살사고 감소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노인의 가족친밀도가 낮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친밀도 향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와 어촌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도시와 어촌은 모두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자살충동 예방정책의 기초적인 대안의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도시노인의 가족친밀도만 자살충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도시노인의 자살충동 예방정책의 기초적인 대안의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도시노인의 자살충동은 가족친밀도와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이 있었다. 향후 도시노인의 자살위험 군 예방정책의 기초적인 대안의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도시노인의 자살충동 예방정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2
- [2] S. W. Oh, D. S. Yoon, "A Research on Characteristics of Aged People's Quality of Lif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2, pp. 119-147, 2006
- [3] G. S. Lim, H. S. Kim, "Effect of Aged People Life Esteem Program on Aged People's Depression, Suicide Impulse and Psychological Peace," Journal of Welfare Aged vol 55, pp. 201-222, 2012.
- [4] S. S. Han, H. W. Kang, "A Research on Determinative Factors of Aged People's Suicide Impulse", Health Social Welfare Review, 2009.
- [5] C. S. Choi, J. H. Han, "An Analysis on Aged People's

Religion Orientation, Attitude of Living and Suicide Impuls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24, No.1, pp.213-251, 2012.

- [6] G. T. Kim, S. S. Choi, “Negative Living Stress and Solitud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34 pp.161-185, 2013.
- [7] H. W. Gang, G. M. Park, “A Comparison 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of Aged People in a Metropolis and in a rural distric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2.
- [8] Community Health Survey, “2010 healthy happy positive community healthy investigation”, http://chs.cdc.go.kr/03_contents/contents_04.jsp, 2010.
- [9] M. S. Shin, “An Empirical Research on Suicide Trial for measuring Suicide Impulse of Aged People”, Yonsei University, Ph D, 1993.
- [10] Y. H. Kim, “Measurement of Family Function,” Sookmyung University, Ph D, 1989.
- [11] E. J. Kim , S. Y. Lee, “Social Support on Informal Social Relation Network of Aged People in Rural District and Propensity to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 Sung University, Vol.28, No.2, pp.149-17, 2012.
- [12] W. H. Lee, Y. S Kw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Members and Awareness of the Elderly on Supporting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Vol.14, No.2, pp.165-178, 2012.
- [12] H. J. Jeon, M. G. Lee, H. S. Kim, S. S. Kim, & J. E. Yun. "Affecting the elderly suicidal family-related variables and psychosocial variables", Hom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Conference Vol. 2010. No. 1(2010. 5). 311.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 교육방법, 정보보안, 사회복지조사

양 미 자(Mi-Ja Yang)

[정회원]



- 2012년 2월 :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강의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심리상담, 사회복지